이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기술임업으로 경영돼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설정된 목표에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야 축적을 늘리느냐에 대하여 머리를 써야 한다고 하면서 산림청장으로서 시원스런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것은 미안스러운 일이나 임업이 그동안 항상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대변천에 따라 임업에 대한 인식도 점차 달라져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65%나 증액된것은 이런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불원간 임업의 종합적인 사항을 고위층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것들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것이 아니니 국민모두가 특히 임업인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나가야 될것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오늘 이와같은 연찬회 준비에 수고해준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이 연찬회가 이분야에 새로운 방향모색에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하였다.

주요임산물 생산실태조사 완료

산림청은 '90년도부터 최초로 주요임산물에 대한 재배실태조사에 착수하여 '91년까지 총23개 품목에 대한 재배자 현황에 생산 및 유통실태등의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 총 생산액은 13,512억원으로 '89년도에 비해 15%가 증가했으며 그중 산나물은 '89년보다 무려 209%가 증가한 253억원, 약용식물은 37%가 증가한 104억원, 산과실은 12%가 증가한 1,504억원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등으로 무공해 자연식품인 산나물, 약용, 산과실등의 임산물 선호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재배하는 가구도 해마다 늘어나 임산물의 재배가 농산촌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임산물 수입개방대책 및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등 임업정책수립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산림조합을 통하여 임업생산액의 비중이 높고 시장성이 있는 주요임산물 재배실태조사에 착수 '90년도에 처음으로 밤, 대추, 호도, 산수유, 오미자의 재배현황과 생산 및 유통실태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재배자수는 총 249,183명(밤 54,118, 대추 121 964, 호도 61,615, 수유 7,154, 오미자 1,332)인것을 밝혀내고 그중 19,889명(밤 6,683, 대추 6,208, 호도 5,949, 산수유 831, 오미자 218)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배자 1인당 평균생산량을 살펴보면 밤이 1,143.6kg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오미자 128.6kg, 대추

114.8kg, 산수유 16.5kg, 호도 12.9kg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량 중에서 자가 소비량을 제외하고 산수유 95.4%, 대추 94.5%, 밤 93.7%, 오미자 87.9%, 호도 74.9%를 시장에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판매비율은 재배규모가 클수록 증가하여 밤나무 201본, 대추·호도 21본, 오미자 51본이상 재배자는 생산량의 90% 이상을 판매하고 있어 이와 같은 규모가 영리목적의 재배규모임을 알수 있었다.

○재배자 1인당 판매금액은 오미자가 144만원으로 가장 많고 밤 144만원으로 가장 많고 밤 103만원, 대추 80만원, 산수유 19만원, 호도 15만원 순이었으며 '89년도 농업소득(561만원) 수준을 상회하는 판매소득을 올리는 재배규모는 밤 601본, 대추 501본, 오미자 5,001본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재배자들의 경영 의식면을 살펴보면 먼저 밤나무재배자의 77%가 현재배면적을 유지시켜 나갈 계획인데 비하여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계획인 자는 6%에 불과하였으며, 재배면적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자는 5% 수준이었다. 다른 수종의 재배자를 살펴보면 65-67%가 현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7-19%가 재배면적을 증가시킬 계획이고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겠다는 재배자는 0.5%-11%에 지나지 않았다.

○재배자들의 애로사항으로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각수종 재배자가 똑같이 노동력부족과 가격하락을 지적하였으며 기술술의 애로사항으로는 병해충 방재와 기술부족이라고 응답 하였다.

또한 '91년도에는 잣, 산딸기등 산과실류와 더덕, 취나물등 산나물류, 특용수인 옻나무, 섬유원료인 닥나무등의 재배자와와 밤, 도토리, 칡, 가공업자 등 5개종류 18개품목에 대한 재배(생산자) 총 6,810명에 대한 생산 및 판매 실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분석중에 있는데 산과실류 재배자는 1,941명, 산나물 재배자는 3,552명, 옻나무재배자는 212명, 섬유원료재배자는 1,053명이며 밤, 도토리, 칡의 가공업자는 52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릉군의 경우는 총 4,418 가구중 23%인 1,000가구가 취나물등 산나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림청은 임산물재배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임산물재배기술 지침서인 「단기소득 임산물재배 및 특성」을 발간하였고 밤, 대추, 호도, 잣, 표고, 송이 산나물의 주산단지로 기지정된 31개소 외에 '91년도에 표고(장흥), 송이(문경, 안동, 인제), 산나물(진안) 주산단지 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농산촌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산림개발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